

관광과 일상의 결합에 관한 소고

오정준*

An Issues on the Nexus of Tourism and Everyday Life

Jeongjoon Oh*

요약: 관광은 일상의 대척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시간에 일상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평범한 경험이고, 관광은 한시적 시간에 비일상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색다른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본고는 관광과 일상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각각의 경계를 초월한 결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공간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평범함을 분석하고, 역으로 일상공간에서 표출되는 관광적인 색다름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일상생활의 루틴은 관광 실천에 영향을 주고, 수행을 통한 가족여행은 관광공간을 일상화시키며, 현지 주민의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기 위한 비전형적 관광공간이 글로벌 도시의 근린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은 더욱 관광화되고, 관광은 보다 일상화된다는 점을 파악했으며, 궁극적으로 일상과 관광 간의 결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

주요어: 관광, 일상생활, 평범함, 색다름, 관광 수행

Abstract: Tourism has been considered as the opposite of everyday life. Tourism has been recognized as an extraordinary experience in an extraordinary time and space, and everyday life has been related to a non-extraordinary, that is ordinary time, space, and experience. Beyond this dichotomous thought, this paper focuses on positively combining the relation between tourism and everyday life. To this end, the paper analyzed the ordinaryness of everyday life in tourist spaces, and conversely, grasped the extraordinaryness in dairy spaces. This paper shows that routines affect tourism practice, family tourism make tourist spaces domestication through performance, and the off-the-beaten track tourism spaces for experiencing the ordinary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are centered around the neighborhoods of global metropolises. Based on this, it was able to overcome dualism between daily life and tourism, and to promote the nexus between two.

Key Words : tourism, everyday life, extraordinaryness, ordinaryness, tourism performance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jeongjoony@naver.com)

1. 서론

관광에 대한 정의는 명확했었다. 비록 학자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제시되었던 기존 정의들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그것은 색다른(extraordinariness)에 대한 욕구이다. 이는 시간, 공간, 실천(혹은 경험)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구성된다.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관광은 휴가, 방학, 휴일, 주말에 행해진다. 이는 매일의 루틴(routine)과 구별되는 한시적 시간으로서, 일상의 짐을 벗어 던지는 시간이다. 노동, 학업, 가사로부터 해방되는 시간, 즉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의 시간이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거주지 환경과 상반된, 이른바 전도 환경에 대한 염원이 존재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원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농촌을, 열대 기후 지역주민들은 눈이 오는 냉·한대 지역을, 그리고 현재의 공간을 벗어나 과거의 노스탤지어 공간 및 미래의 유토피아 공간을 방문하고자 한다. 거주지의 일상적 공간과 상반된 환경, 다시 말해 색다른 공간을 탐색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마지막은 실천적 측면이다. 관광객들은 정례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적 행동보다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을 방문지에서 취한다. 예를 들어 일상의 미디어를 통해 경험한 대상을 찾아 눈(혹은 카메라)으로 직접 확인하고, 해수욕, 스킨스쿠버다이빙, 스키 타기, 사진 찍기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한다. 따라서 관광객 실천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대상을 관람(sightseeing)하고, 색다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하다.

앞선 논의를 통해 관광을 정의한다면, 색다른 욕구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실천적 측면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시적 시간에 색다른 공간에서 행해지는 색다른 실천'으로 관광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의 전형적 사례를 '휴가 기간에 낭만적인 장소를 방문해 사진 찍는 것'과 '여름 연휴에 해변을 방문해 해수욕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은 일상 공간에서 매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규범적 행동이 아니

라, 관광공간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국적(exotic) 경험이다. 이러한 정의와 사례는 기존의 대중(혹은 대량) 관광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정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의 대중 관광과는 별개로 대안적 형태의 관광이 20세기 후반부터 출현했고,¹⁾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소수에 불과했던 대안적 형태의 관광은 이제 대중 관광의 규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광 전체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수의 관광객들은 여전히 특정 기간에 색다른 장소를 방문하지만, 일단의 관광객들은 한시적인 기간에만 이동하지 않고, 이국적인 환경 및 대상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색다른으로 가득 차 있는 전형적 관광공간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일상성으로 특징될 수 있는 비전형적 관광공간에서도 다수의 방문객이 목격된다. 일례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남산타워 등과 같은 전형적 관광 명소를 찾고 있지만, 홍대, 압구정동, 삼청동 등 서울 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도 방문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시민과 관광객이 공간적으로 유리되지 않고, 양자가 뒤섞이는 장소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관광객들은 일상생활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례적, 비성찰적, 반복적 습관을 방문한 지역에서 실천한다. 비록 완벽한 표준은 아니더라도, 몸에 체화된 일상의 실천을 관광지에서 반복한다.²⁾ 그 결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미 문화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음식, 수면, 행동 습관이 방문 공간에서 실천된다. 심지어는 사진 수행 및 복장 습관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해외의 유명 관광지에서 무리 짓고 있는 관광객의 국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³⁾ 따라서 관광객의 습관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로 가져가는 '수하물의 일부(they are part of their baggage)'이다 (Edensor, 2001, 61).

사회적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행은 가족해체와 디아스포라의 시기에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가족은 집에서

조차 분리된 개인으로 생활하며 식사, 수면, 대화, 출퇴근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각자의 영역일 뿐이다. 그러나 여행은 가족과의 시공간적 귀속감을 가져다준다. 비록 한정된 기간이지만 그들은 함께 움직이며, 식사하며, 잠자며, 대화하고, 사진 찍는다. 그래서 관광은 파편화되고 이동화된 근대적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신체로 묶어주는 도구가 된다. 타국에 거주하는 가족(지인)을 방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리적 거리의 증가만큼 서로 간의 결속력이 요구되기에 그들은 관광이라는 도구를 선택한다. 관광학계에서 이른바 VFR(Visits to Friends and Relatives)라고 명명한 이러한 관광유형은 물리적 공현존, 즉 근접성(proximity)에 대한 욕망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으로 여행하는 것’이다(Larsen, 2004, 41). 이른바 ‘일상의 사회화가 관광을 통해 매개되고, 원격화되는’ 양상이다(Larsen, 2008, 25).

앞선 연유로 관광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된다. 관광은 일상의 일시적 반전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일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광을 일상의 대척점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탈피하여, 관광과 일상을 동일 스펙트럼의 범주에서 결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광과 일상생활의 이분법적 구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양자를 해체하기 위한 개념과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과 일상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경험적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관광과 일상의 결합: 이분법에서 수행까지

관광 연구는 반대 범주를 활용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Stors *et al.*, 2019, 8). 관광의 대척점을 일상으로 규정 짓고, 양자 간의 차이가 관광을 유발한다는 가정하에 논

의를 시작한다. 차이는 사고, 실천, 가치, 태도는 물론이고 환경적 속성까지 망라된다. 이로 인해 관광과 일상 간의 경계가 설정되고, 그것을 초월하는 일시적 순간은 역치성(liminality) 및 전도(inversion) 등으로 표현되었다. 관광과 일상 간의 차이가 분명하고, 양자 간의 경계가 확연해질수록 관광에 대한 설명은 더욱 용이했다. 그래서 관광 연구는 양자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전통을 유지하면서 관광과 일상 간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차이를 확장하는데 열중해왔다.

대표적 학자는 Cohen이다. 그는 관광을 일상생활의 일시적 반전으로 간주하면서, ‘노동, 돌봄, 절약이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Cohen, 1979, 181). Turner와 Ash(1975) 또한 ‘관광객이 자신의 거주 환경으로부터 일시적 거리를 뒤편으로써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규범과 가치관을 일시 정지시키고, 자신이 속한 일상과 사회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Urriely, 2004, 203 재인용). 연장선상에서 MacCannell은 근대적 일상생활은 진정성이 없는 반면 ‘근대적 관광은 진정한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안했다(MacCannell, 1973, 159). 관광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Urry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분법을 근대적 사회에서 조절된 사회적 실천 영역의 표현’이라고 제안하면서, Cohen의 논의를 따랐다(Urry, 1990, 2). 이에 관광을 ‘일상생활의 일시적 역전’으로 고려하면서, 근대적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을 ‘거주 노동의 일상적 장소와 관광 대상 간의 차이’로 간주했다(Urry, 1990, 3).

앞선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에 대한 정의는 일상에서 시작되어 일상으로 마무리된다. 다시 말해 일상을 언급하지 않은 채 관광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관광을 정의할 때, 일상이라는 반대 범주를 활용하는 이유는 학계의 고정된 인식일 수도 있고, 관광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원인에 상관없이 이러한 연구 전통은 관광과 일상 간의 고정된 이원론을 생산 및 확장했다. 노동과 여가, 생산과 소비, 현지인과 관광객(혹은 호스트와 게스트), 지루함과 즐거움, 정례(rule)와 역치성,⁴⁾ 중요한 지인과 이국적인 타자,

그리고 평범함과 색다름에 이르기까지 양자 간의 '분화(differentiation)'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화(혹은 정화)'는 일상과 관광이 각각 일상적인 세계와 이국적인 세계라는, 즉 서로 다른 존재론적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함의한다(Larsen, 2008, 21-22). 이러한 양상은 비단 관광 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근대성의 유산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의 도래에 따라 관광과 일상 간의 이분법적 연계가 동요되기 시작했다. 화두를 던진 학자는 Urry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관광을 설명하기 위해 이원론을 차용했지만 기존의 학자들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차이가 관광을 유발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관광 동인이 일상생활(경험)에 기인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광객 경험이란 일상생활에서 각종 매체로 접한 이미지를 인식한 채, 그 대상을 관광지에서 찾고, 사진 찍는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 circle)의 과정이고, 그렇기에 관광객은 카메라를 두른 기호학자라고 주장했다(Urry, 1990). 즉, 관광과 일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양자 간의 느슨한 연계를 선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를 포함한 일단의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 관점을 채택하여 관광과 일상 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했다(Lash and Urry, 1994; Munt, 1994; Urry, 1990).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에 입각한 일단의 학자들은 모더니즘을 분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탈분화(de-differentiation)의 시기로 각각 전제했다. 근대적 시기가 규범적, 미학적, 제도적 사회활동 분야의 분화과정으로 특징 지워진다면, 포스트모던 조건은 제 분야의 경계가 소멸되는, 이른바 탈분화과정이 나타난다는 점을 그들은 제안했다(Uriely, 2005). 부연하면 근대성의 시기엔 경제, 가족, 국가, 과학, 도덕, 노동, 여가, 관광 등과 같은 다수의 제도적이고 규범적 부문이 구별되어서 발전하는 '분화가 나타나고, 탈근대성의 시기엔 내파를 통한 이원적 대립체제의 소멸, 각 영역 간의 자율성의 상실, 그리고 경계의 소멸을 통한 탈분화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오정준, 2004, 392-393).

분화에서 탈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Lash와 Urry(1994)가 '관광의 종말(end of tourism)' 개념을 제시하게끔 자극했다(Stors *et al.*, 2019, 10). Lash와 Urry(1994)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호 및 전자 이미지의 놀라운 유동성을 통한 모의 모빌리티를 경험하던 혹은 문자 그대로 이동하던지 간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관광객이다'라고 언급하면서(박형준·권기돈 옮김, 1998, 381-382), 기술혁신을 통한 관광 양상의 변화를 설명했다. 예를 든다면 '집에서 비디오 및 가상현실을 통해 먼 거리의 관광 명소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지 인근의 테마파크나 쇼핑몰에서 전 세계의 매력물(혹은 명소)을 소비할 수 있기에, 관광객 경험은 공간적 이동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안 가능하다는 것이다(Uriely, 2005).

'관광의 종말'은 반대 범주를 활용하는 관광 연구 전통을 탈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고(Stors *et al.*, 2019, 10), 이는 후속 연구에 의해 더욱 공고해졌다. Munt는 관광과 다양한 활동이 결합되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관광 소비의 지능화 및 전문화 과정을 제시했다. 예를 든다면 전문가를 위해 설계된 야외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위한 생태관광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광의 변화양상을 '관광은 모든 것이며, 곧 모든 것이 관광'이라고 표현했다(Munt, 1994, 104). 연장선상에서 Mowforth와 Munt는 '새로운 관광용어의 A에서 Z까지'라고 제시했다(Mowforth and Munt, 1998, 100).⁵⁾ 이는 어떤 접두사가 관광 앞에 놓이더라도 새로운 관광유형이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Urry 또한 '사람들은 좋은 삶든 싫든 간에 많은 시간 동안 관광객이다'라고 표현했다(Urry, 2002, 74).

탈분화 패러다임에 기인한 또 다른 개념은 '탈관광객(post-tourist)'이다. 이 개념을 제시한 Feifer(1985)는 자기 인식적이며, 다양한 경험을 즐기는 탈관광객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먼저 관광객 시선의 대상을 보기 위해 집을 떠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세계의 모든 장소들은 집안에서 응시되고, 비교되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의 종말' 개념과도

어느 정도 공명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선택을 통해 변화와 즐거움을 인식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실재와 재현을 문제시 삼지 않고, 단지 그것을 통한 놀이성(playfulness)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관광을 진정성 없는, 일련의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Feifer, 1985; Urry and Larsen, 2011, 115에서 재인용). 탈관광객은 관광 매력물이 진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을 방문해서 전통춤을 구경할 때, 그들이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원시인이 아니고, 더 나아가 전시되는 춤이 전통적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을 위해 꾸며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 탈관광객은 비록 진짜 관광 상품이 전시되고 공연되더라도, 그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관광 상품을 즐겁게 소비한다. 따라서 그들은 고도로 자기 인식적이며,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광객이다(Stors *et al.*, 2019, 11).

Urry는 Feifer(1985)의 논의를 바탕으로 탈관광객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는 탈관광객을 '다양한 선택의 변화와 즐거움을 인식하고 있는 방문객'으로 정의했고, 관광을 '진정한 경험이 없는, 여러 개의 텍스트가 포함된 일련의 게임'이라고 주장했다(Urry, 1990, 91). 탈관광객이 놀이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광객 경험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제기했다. 미디어 문화의 발달이 타지의 색다름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탈관광객은 (일반 관광객과는 달리) 일상성의 일시적 전도로 창출되는 단순한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Urry and Larsen, 2011, 115-116). 연장선상에서 Campbell은 '탈관광은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인 모빌리티 내에서 욕망, 상상, 미디어를 통한 매개가 포함되기에,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물리적 여행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탈관광객은 전통적인 관광 경험 개념에 반기를 든다'고 주장했다(Campbell, 2005, 200).

한편 탈관광객 개념은 수행(performance) 개념과 공명함으로써 작금에 더욱 각광 받게 되었다. 자기 인식적인, 즉 현실적인 탈관광객은 방문하는 관광 사이트의 장소성에 귀속되지 않는다. 즉, 장소 정체성을

소비하기 위해 방문하기보다는 장소를 무대 삼아 그들만의 놀이를 전개한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을 방문할 때, 그들은 과거 문명을 방문하는 시간 여행자가 되지 않고, 수행을 통해 장소를 그들만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다. 수행 개념은 탈관광객의 역할 전환 능력 외에도, 관광과 일상생활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도와준다(Stors *et al.*, 2019, 11). 많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수행 개념은 관광 연구에서 유행했던 재현주의 사고를 불식시켰다(Edensor, 2000, 2001; Franklin and Crang, 2001; Crouch, 2003; Bærenholdt *et al.*, 2004; Urry and Larsen, 2011. 관광은 단지 관람(sightseeing)이고, 인용의 의례(ritual of quotation)에 불과하다는(Osborne, 2000, 81) 재현주의적 사고는 시각적 헤게모니와 담론을 강조했지만, 수행 개념은 실천과 수행을 강조한다. 수행 관점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관광산업이 미리 지정한 표준화된 대본, 즉 담론화된 장소를 관람하지 않고, 경관을 무대 삼아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천한다. 이는 '보는 방식(way of seeing)'으로부터 '행동하는 방식(way of doing)'으로의 전환이다.⁷⁾

따라서 수행 관점은 행위의 존재론을 강조함으로써 탈물질화된 이미지 경관보다는 관광객 신체의 물질성을 부각한다. 더 나아가 관광이 일상적 실천, 평범한 장소,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가족 및 지인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Larsen, 2008, 26). 즉, 관광객은 일상의 습관, 일상적 사물,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관광지로 가져가 그들 몸을 통해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 관점은 관광을 일상적 루틴이 전적으로 유예되는 한계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관광은 일상을 초월하지 않는다...(중략)...비록 규범으로부터의 탈출 관념으로 채워졌지만, 관광객들은 일상적 습관을 실어 나르고, 그것들과 반응한다. 그것들은 관광객 수하물의 일부이다(Edensor, 2001, 61).

특히 일상적 실천에 대한 강조는 Pons(2003)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에 의하면 관광은 본질적으로 ‘공간적 실천, 공간을 통한 실천, 그리고 체화된 행위에 관한 것이다. Pons(2003)는 관광객들이 집이 아닌 장소에서 어떻게 자신을 집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지를 제시하고, 휴일 동안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평범한’ 실천과 장소를 알려주었다(Pons, 2003, 47; Larsen, 2008, 27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수행 관점은 일상생활의 사회성이 관광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성(sociability)은 원래 근대인의 사회적 기술을 설명해주는 Simmel(1997)의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공간적으로는 가깝더라도 친밀도가 낮은 사람들과는 거리두기를 행하고, 친구, 친척, 가족들과는 즐거움을 위한 순수한 상호작용을 실천한다(Simmel, 1997; Larsen, 2008, 23에서 재인용).⁸⁾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수행 관점은 순수한 상호작용이 일상보다는 관광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관광객 수행에는 공통체적 본질이 내포되었다는 것이다(Larsen, 2019, 25). 관광은 가족들을 함께 있게 해주고 이국적인 장소만큼이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염원을 가져다준다. 관광객들의 사진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객들은 담론화된 관광 명소를 사진 찍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를 뷰파인더에 담는데 더욱 열중한다(Larsen, 2004; Urry and Larsen, 2011; 오정준, 2015a; 오정준, 2015b). 가령 에펠탑을 방문하게 되면, 낭만적 응시(romantic gaze)를 통해 에펠탑을 사진 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경 삼아 사랑하는 가족, 연인, 지인들을 뷰파인더에 담는 것이다. 여기에서 재현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낭만적 시선은 기각된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이른바 가족 시선(family gaze)만이 존재한다(Larsen, 2005). 따라서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관광은 일상적 루틴, 행위 그리고 역할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동인이자, 평범함이 곧 색다름으로 바뀌는 시공간적 장치이다. Haldrup과 Larsen에 의하면 관광은 ‘유포피아 수행’인 셈이다(Haldrup and Larsen, 2010, 29).

앞서 언급된 탈분화, 관광의 종말, 탈관광객, 수행이론

은 관광을 색다름으로, 일상생활을 평범함으로 규정하는 사고를 불식시킨다. 오히려 관광에서 평범함을 추구하고, 일상에서 색다름을 경험한다는 사고를 촉진시킨다. 후속되는 장에서는 평범한(혹은 색다른) 일상과 색다른(혹은 평범한) 관광이 혼재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일상에서의 관광: 일상 공간에서 색다름을 경험하기

집은 일상생활의 근간이다. Goffman(1959)에 의하면 가면을 벗어 던지는, 즉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는 후면무대이고, Heller(1984)의 논의를 빌리자면 하루 단위의 일상생활이 시작하고 끝맺음하는 공간상의 확고한 위치이다(Heller, 1984; Larsen, 2008, 24에서 재인용). 또한 무수한 일상의 사물들로 채워지고, 매일의 습관 및 의례가 수행되는 공간이기에 집은 색다름보다는 일상의 평범함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 연구는 집의 평범함을 관광의 동인으로 간주했다. ‘집을 떠나야만 흥미롭고 호기심 있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Urry and Larsen, 2011, 1).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할 때, 집으로부터의 탈출은 색다름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색다름을 감각적(특히 시각적)으로 소비하기 위함이다. 색다름은 이동 거리가 증대될수록, 즉 집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멀어질수록 배가 된다.⁹⁾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전은 집을 색다르게 변화시켰다. 집은 신문, 전화, TV 등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은 물론이고 SNS, 문자, 인터넷, YouTube, OTT 등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의 장소가 집으로 들어옴으로써, 집을 매개로 한 여행이 가능해졌다.¹⁰⁾ 세계 여러 지역의 관광 명소와 매력물, 명화와 건축물, 그리고 먼 지역의 사람들까지 집에서 관람할 수 있고, 심지어는 두 장소 혹은 두 계절 이상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시각적 소비라는 전제가 따르지만, 이동 없는 여행

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의 대부분 시간 동안 관광객이 된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을 배가시켰다. 랜선 여행은 코로나로 인해 부각된 여행일 것이다. 공공 혹은 민간기업 등에서 제작한 랜선 여행 상품은 전 세계의 장소를 주제별로 방문할 수 있고, 사전 여행 경험자 및 가이드의 해설이 가미됨으로써 장소를 시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사진 아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앱을 활용하여 여행 추억을 공유하는 방법, 해외 곳곳 거리를 담은 1인칭 시점 영상 유튜브 ‘와치드 워커(watches walker)’ 채널,¹¹⁾ 착륙과 실제 관광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국가의 상공을 비행한 후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가상 출국 여행’¹²⁾ 등은 이동(혹은 방문) 없는 여행의 대표적 사례이다.

집 뿐만 아니라 집 주변 공간에서도 색다름을 경험할 수 있다. 인근의 테마파크나 쇼핑몰에는 전 세계의 매력 물이 모여 있다.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스피크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을 일상생활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적 모티브를 혼합한 건축물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이벤트는 일상의 존재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로 안내한다.¹³⁾ 또한 테마파크와 쇼핑몰의 식당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제공한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색다름의 소비가 전개된다. 이른바 일상생활의 디즈니화(disneyfication)인 셈이다.

더 나아가 현지 주민 역시 종종 관광 모드로 생활한다. 다시 말해 그들 일상 공간으로의 여행이다. 교육, 복지, 노동, 정치, 경제 등과 같은 다수의 요인은 사람들의 국내 외적 이주를 부추기고, 새롭게 정착한 거주지는 그들에게 있어 평범함이 아닌 색다름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주한 후의 정착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의 시간까지도 그들은 관광객 활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Stors et al., 2019, 3). 그들의 근린을 둘러보고, 주변의 추천과 권유를 받아 유명 사이트 및 음식점을 방문한다. 거주 지역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 장터, 페스티

벌,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과 뒤섞인다. 유학생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서울에 유학 온 지방 학생 및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서울의 거주 공간과 그 주변은 색다름으로 인식된다. 그들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하고 방문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다. 현지주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관광객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대도시의 공간적 규모는 일상 공간으로의 여행을 독려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거주민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제외한 근린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휴가를 보낼 때와 같은 호기심과 탐험 감각으로 다른 근린을 방문한다. 즉, ‘그들 도시 내의 관광객(a tourist in his own city)’이 되는 것이다(Richard, 2017, 7). 또한 자신의 거주 지역을 탐방하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기도 한다. Diaz-Soria(2017)는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지역 거주자들이 바르셀로나 워킹 가이드 투어에 참석한 경험을 분석한 바 있다. 지역 거주자들은 공간적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자신의 도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전통적인 관광 경험과 관련된 가이드 투어에 참여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가이드 투어는 도시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로 하여금 타자성(othersness), 혹은 주변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가이드 투어가 현지 주민과 그들 주변 환경 간의 매개 기술로 작동한다(Diaz-Soria, 2017, 113). 비록 통계적이고 공식적인 의미에서의 관광객은 될 수 없지만, 현지 주민들은 관광적인 방식으로 그들 주변의 장소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근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현지 주민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다.

이제 관광지를 방문해야만 흥미롭고, 이국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혹은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도 색다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공간은 더욱 색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이를 시각적으로 소비하려는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시각적 소비를

위한 장거리 이동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관광을 정의함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벗어난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경험, 그리고 색다름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색다름은 집과 주변에서 추구될 수 있고, 그렇기에 관광은 일상에서 행해질 수 있다. 관광에 대한 정의는 동요되기 시작한다.

4. 관광에서의 일상

1) 관광에서 평범함을 경험하기

‘가족들은 집을 떠나왔을 때, 종종 집에 있는 듯하다.’

(Larsen, 2004, 53)

근대적 가족의 일상은 분리의 연속이다. 집 밖은 물론이고, 집 안에서조차 분리되어 있다. 각자의 시공간 테이블을 갖고 있기에, 다른 장소에서 저마다의 활동을 전개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집을 나서고, 귀가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고 가사노동, 숙제, 장보기, 반려 동물 산책 등 서로의 임무가 구분되어 있다. 식사 시간조차 얼굴을 마주하기 어렵다. 집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조차 완전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근대적 가족은 하나로 묶인 사회체라기보다는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 개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행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저마다의 활동들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단일한 가족여행 계획표만 존재한다. 자동차, 기차 혹은 비행기에서도 그들은 한 묶음이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며, 같이 식사하고, 같이 행동한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지 못했던 함께함(togetherness)을 달성하는 순간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친밀감과 단란함을 추구한다. 이상적인 가족을 염원하기에 가족 간의 다툼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가족사

진 수행은 이것의 가장 결정적 순간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의 프레임에 빠짐없이 포함되고, 더 나아가 밝은 미소와 다정한 포즈를 취한다. 현재와 미래의 관객을 위해,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이상적인 가족 이미지를 생산한다. 가족의 ‘함께함’, ‘친밀함’, ‘단란함’이 사진을 통해 완성된다.¹⁴⁾

근대적 조건은 ‘함께함’, ‘친밀함’, ‘단란함’으로 결속된 하나의 사회체, 즉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행에서만은 독립성보다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가족주의(familism)¹⁵⁾를 지향하는데(고영복, 2001, 64), 이는 근대성의 조건에서 가족을 존재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Giddens(1992)의 ‘합류적 사랑’과 Bauman(2003)의 ‘유동적 사랑’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은 그 존재를 위해 가족주의를 수행하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Larsen, 2004, 169에서 재인용). 한때 가정을 합법화하고 결속시켰던 가치와 제도들이 힘을 잃고 있는 ‘순수한 관계’ 시대이기에 가족은 부단한 수행과 내러티브를 동원하여 가족 관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Giddens(1992)의 논리를 따르자면 순수하지 않은 가족일수록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Larsen, 2004, 168-169에서 재인용). 따라서 근대적 가족은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실천만을 하지 않는다. 일상에서는 이미 유실된 평범함을 실천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주위로부터의 부분적 고립을 선택한다. 물론 가족의 ‘함께함’을 위해서이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지 주민 혹은 다른 여행객과 접촉이 제한된, 즉 개별화된 가족 공간이 일시적으로 창출된다. 펜션, 별장, 산장, 캠핑카는 이것의 대표적 공간이다.¹⁶⁾ 그곳에서 가족들은 일상의 평범함을 실천한다. 물놀이 및 바비큐 파티와 같은 색다른 활동도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며, 같이 산책하며, 같이 놀이를 즐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상에서 하지 못한 함께함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창조적 활동 통해 색다른 공간을 평범함으로 가득 채운다. 특히 아이들은 숙소 주변에서 채집한

근층, 낙엽, 꽃 등은 물론이고 해변의 조약돌, 조개껍데기, 불가사리 등을 통해 숙소를 장식한다. 이러한 활동은 색다른 공간을 가정화한다. Heidegger(1993)의 논의를 빌리자면 거주(dwelling)와 건립(building)의 방정식이 고(Larsen, 2004, 54에서 재인용), Bærenholdt(2004)의 용어를 사용하면 거주 관광(inhabiting tourism)이다. 한편 Ingold(2000)는 이를 행위 경관(taskscape)으로 간주했다. 행위 경관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거주하고, 이동함으로써 자신들을 평범함으로(혹은 루틴으로) 공간에 새기는 방식이다. 경관이 관련된 특징들의 배열이라면, 행위 경관은 관련된 행동들의 배열이다(Ingold, 2000, 195; Larsen, 2008, 28에서 재인용). 이러한 활동은 집과 집 밖 간의 경계를 더욱 소멸시키고, 여행 중 거주하기(dwelling-in traveling)를 완성한다. 그 결과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집, 즉 '대안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집이 건설된다.

따라서 근대적 가족은 색다른편을 경험하기 위해 집을 나서지 않는다. Edensor(2000)에 의하면 색다른 장소는 가족들의 관광 실천(혹은 수행)을 위한 하나의 무대(stage)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규범, 관습, 사고로 체화된 몸의 실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근대적 가족의 여행 동기는 색다른 환경에 대한 염원과 그곳에서의 색다른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일상에서 결핍되어 있던 가족과의 '함께함'이 추가된다. 그로 인해 근대적 가족은 현지 주민 및 다른 관광객의 상호작용보다는 가족만의 구별된 독립 공간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일종의 엔클레이브 가족 공간(enclavic family space)인 셈이다.¹⁷⁾

2)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 경험하기

일상은 매일의 반복되는 결과물로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다. Edensor는 이를 '상식의 영역'으로 명명했다(Edensor, 2001, 61). 현지 주민의 일상은 관광객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체에 आरोसाजे진 전(前)대본적이고 비성찰적 습관

의 결과물이다. 진정하고, 실재적이며, 꾸밈없는 실천이다. 일단의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의 이러한 일상을 경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 관광객과는 달리 고립을 선택하지 않는다. 현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 바, 클럽,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놀고, 춤을 추면서 그들과 공간적으로 혼재된다. 현지 주민의 루틴과 매일의 리듬, 즉 '상식의 영역'에 뛰어 들어간다.

이러한 일단의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주의자(cosmopolitan) 성향을 갖는다. 세계시민주의자는 '고도의 세련됨 및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국적인 음식과 음악을 소비함으로써 문화적 편협함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고(Holt, 1997, 이승준, 외, 2013, 43에서 재인용), Riefler와 Diamantopolous(2009)에 의하면 세계시민주의자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가장 큰 변수는 '해외여행, 해외 거주 경험, 타문화에 대한 학습' 등이 있다(이승준, 외, 2013, 43에서 재인용). 요약하자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행 경험이 많고, 현지 언어에 능통하며, 타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로 충만된, 즉 능동적이고 세련된 관광객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 양식은 대중 관광객의 그것과 매우 차별적이다. 관광 가이드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바일 앱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매개 삼아 여행 정보를 취득하고, 전통적인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와 에어비엔비(Airbnb)를 통해 숙박한다. 또한 미술쟁 가이드에 의존해서 식당을 찾기도 하지만, 잇위드(Eat with)¹⁸⁾를 통해 현지 집밥을 선호한다. 현지 문화에 대한 체험 또한 박물관 및 공연 관람을 이용하기보다는 카우치 서핑(Couch Surfing) 등과 같은 여행 네트워크를 활용한다.¹⁹⁾

이들은 패키지 깃발 아래, 카메라를 두르고 있는 관광객임을 거부한다. 현지 주민의 '눈에 띄기'보다는 그들에게 녹아 들어가고 싶어 한다. 즉, '눈을 맞추고' 싶은 관광객이다(Maitland and Newman, 2009, 135). 방문 지역의 전형적 관광 명소를 관람하기보다는 현지 주민이 이용하는 카페, 식당, 바, 클럽을 방문하고, 관광 명소를 북적이게 만드는 과잉관광(over tourism)의 주범으로서가 아니라,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분별 있는

관광객이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로 인해 관광객에 대한 고정관념은 허물어진다. 그들은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시 사용자(city user)에 가깝다(Maitland, 2013, 12). 비록 일시적이지만 그들은 현지 주민으로 둔갑한다. 방문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을 사용하고, 만끽하며, 소비한다. 이러한 공간은 MacCannell(1976)의 용어로 치자면 후면무대이고, Edensor(1998)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이종적 관광객 공간(heterogeneous tourist space)이며, Goffman(1959)에 의하면 가면을 일시적으로 벗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전형적인 관광공간(the beaten track)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관광공간은 색다름으로 가득 차 있다. 공간적 범위를 도시로만 한정할 때, 이는 글로벌 도시의 (구)도심에 대부분 위치한다. 이곳은 도시 내의 다른 지역과 물리적, 상징적으로 분리된 역사적 장소로서, 유명 관광 명소와 역사적 건축물이 입지해 있다. 대표적 예로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물, 서울의 경복궁 등은 모두 글로벌 도시의 도심에 입지해 있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이에 더하여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관련 산업 또한 집적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도시를 최초 방문하는 관광객이 즐겨 찾고, 대량의 관광객이 밀집하는 공간이다(Matoga and Pawlowska, 2018, 1645-1646). 일단의 학자들은 중심관광객지구(central tourist district), 관광업무지구(tourism business districts), 엔클레이브 관광객 공간(enclavic tourist spaces), 관광객 거품(tourist bubble) 등의 용어를 통해 전형적인 관광공간을 표현했다.²⁰⁾ 유명 관광 명소, 역사적 건축물, 박물관 등은 물론이고 호텔 및 레스토랑과 같은 관광객 편의 시설이 집중된 중심지, 즉 색다름으로 가득 찬 핵심적인 관광 지구이자 관광객 방문의 거점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창출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도시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서구 도시들은 도시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산 개발(혹은 관광개발)에 주력했다. 사용하지 않은 공장, 부두, 건물 등은 유산으로 간주됨으로써 박물관, 갤러리, 상점, 카페

로 변모되었고, 호텔 및 컨벤션 센터가 건설되었다. 또한 외부의 스타 건축가²¹⁾를 초청하여 도시 내에 상징적 건물을 건립했다(Maitland, 2013, 12). 자산 개발, 상징적 건물 및 관광 시설 조성으로 대표되는 도시재건 방식은 일부 도시에 성공을 가져왔고, 이는 후발 도시들이 모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Ritchie and Maitland, 2010, 2). 물론 장소 및 도시 마케팅이 표방하는 것은 차별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이지만, 후속 결과로 이어지는 공간 창출은 장소의 진정성을 상실했다.²²⁾ 그 결과 관광 경관의 표준화, 혹은 관광공간의 연속적 재생산이 나타났고(Fainstein and Gladstone, 1999), 많은 도시 내에 무장소성의 장소가 창출되었다(Maitland, 2013, 12-13).

세계시민주의 기질을 가진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공간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들은 유명하고, 화려하며, 기념비적인 도시의 스펙터클보다는 계획되지 않고, 꾸미지 않은 장소의 방문을 선호한다(Fainstein *et al.*, 2003, 243). 그들은 오히려 현지 주민의 체화된 실천, 즉 일상생활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자 한다. 실재적, 진정한, 그리고 숨겨진 모습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이는 도심이라기보다는 현지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근린이다. 일단의 도시관광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린을 '비전형적 관광공간(off the beaten track tourism space)'으로 표현하고 있다(Maitland and Newman, 2009; Matoga and Pawlowska, 2018).

'비전형적 관광공간'은 특히 글로벌 도시 근린에서 잘 나타난다. 런던의 이즐링턴(Islington)과 스피탈필즈(Spitafields), 파리의 베르시 빌리지(Bercy Village), 베를린의 크로이츠 베르크(Kreuzberg)가 대표적이다(Matoga and Pawlowska, 2018, 1647). Maitland (2013)는 이러한 근린의 전형으로 이즐링턴을 제시했다. 이즐링턴은 과거 제조업 및 노동자 계급 주택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서, 대표적인 관광 명소도 없을뿐더러 런던의 전형적인 관광 지구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지역이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했기에 극장, 식당, 바, 전문 상점 등의 다양한 문화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최근에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글로벌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Butler, 2007, 184; Maitland, 2013, 12-13에서 재인용).

Maitland(2013)는 세계시민주의자적 성격을 갖는 관광객들이 이즐링턴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감동받는다 고 제안했다. 첫 번째는 꾸미지 않은 것에 대한 매력으로서, 방문자를 위해 상품화된 환경에 대한 반감이다. 역사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도심의 유명 관광공간에 대해 그들은 식상함을 느낀다. 버킹검 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그곳은 왕이 없는 죽은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간은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관찰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건물을 주택과 상점으로 현대화시킨 이즐링턴에 환호한다. 그 이유는 그곳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노동하는 장소이며, 관광객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가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혼합이자, 건물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그들은 이러한 건물을 마주하면서 현실 도시(real city)의 한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Maitland, 2013, 3).

건축물과 주택은 오래되었지만, 정말 멋지다...(중략)...이곳은 현대적인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100여 년 전의 오래된 건물처럼 보인다. (완전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벽돌과 그 밖의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즐링턴 방문객 대상 인터뷰 내용
(Maitland, 2013, 14)

두 번째 측면은 현지인에 대한 경험이다.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현지 주민은 기표가 된다. 영국을 방문한다면 영국은 기의, 영국인은 기표가 되는 셈이다. 비전형적 관광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시 근린은 기의가 되고 현지인은 기표, 즉 마커(marker)가 된다. 여기에서는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관광객들을 위한 행동(서비스), 즉 진정성 없는 행위를 목격하기보

다는 주민들이 그들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찾는다(Maitland, 2013, 12-14).

창을 통해 본 컴퓨터 직원의 모습은 실제 런던의 일부로서, 정말 멋져 보인다...(중략)...현지 마켓을 방문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현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는 Tesco였다. 우리는 구경하고 싶다.

이즐링턴 방문객 대상 인터뷰 내용
(Maitland, 2013, 15)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도심에는 경복궁, 종묘, 남산타워 등의 명소가 있고, 고급호텔 및 면세점과 같은 관광 관련 시설이 입지 해있다. 이러한 공간은 색다름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외국인 방문객들로 항상 북적인다. 그러나 이곳엔 서울 시민이 다수 거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시민주의자 성격을 갖는 일단의 외국인 방문객들은 서울 시민의 일상성을 관람하고, 그들의 여가 공간을 체험하기 위해 홍대 입구, 가로수 길, 북촌 등으로 침투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서울의 전형적인 관광공간이 아니다. 대표적인 힙스터 공간이자, 비전형적 관광공간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울에 거주했던 외국인처럼 스스럼없이 서울 시민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을 춘다.

따라서 서울을 '누구의 도시인가?'라는 것은 이제 우문(愚問)이 되었다. 서울 시민과 방문객으로 양분하는 구조는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객과 함께 사업, 노동, 결혼, 교육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울의 전형적인 명소는 물론이고 비전형적인 공간까지 침투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서울은 사업, 노동, 결혼, 교육의 공간임과 동시에 여가의 공간이다. 따라서 그들을 외국인 방문자로 간주하고, 서울 시민만을 도시 소유자로 바라보는 관점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양자 모두 '서울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5. 결론

관광 연구는 반대 범주를 활용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관광의 반대 범주를 일상으로 간주하면서 양자의 시간적, 공간적, 행동적 차이를 확장하는데 열중했다. 양자 간의 차이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양자 간의 경계가 분명할수록 관광에 대한 설명은 훨씬 명확해졌다. 관광 연구의 이러한 전통은 근대성에 기반한 이원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관광과 여행에 대한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반대 범주를 활용한 전통은 관광 연구에 만연해있다. 패키지 관광의 등장 이후 관광객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여행객(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면서 동기(목적), 여정, 실천(행동)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관광객과 여행객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양자 모두 즐거움을 위한 목적과 함께 사업, 친지 방문, 자아실현을 위해 집을 나서고, 동일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며,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비행기와 호텔 내에서 관광객과 여행객을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따른 분별 없는 관광객이 될 수 있고, 때론 사려 깊은 여행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과 여행을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연속체의 범주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광과 일상도 마찬가지로이다. 관광은 일상의 일시적 반전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루틴은 관광객 실천에 영향을 주고, 가족 구성원들의 수행은 관광공간을 일상화시킨다. 관광은 일상에서 분리된 가족을 한시적으로 연결해주는 이벤트로서, 그곳에서의 실천은 일상에서 행하지 못한 평범함으로 가득 차 있다. 더 나아가 관광객들의 방문 공간 역시 색다름으로만 대표되지 않는다. 다수의 관광객들은 여전히 색다름을 소비할 수 있는 전형적 관광공간을 방문하지만, 일단의 관광객들은 현지 주민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비전형적 관광공간을 찾는다. 그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현지 주민들의 평범함을 경험하고, 그들과 뒤섞여 현지 문화를 소비한다. 일상 역시 더 이상 평범함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집은 점점 더 색다르게 변모되고, 상업 공간의 확대는 집 주변을 보다 이국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본고는 관광과 일상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 양자의 특징이 존재하기에 양자 간의 경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관광과 일상이 구분되는 것은 당연하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것은 양자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이 속에서 양자를 결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상은 점점 더 관광의 경계를 넘나들고, 관광 역시 일상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이원론으로, 혹은 반대 범주를 활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과 관광, 그리고 평범함과 색다른 간의 균형 잡힌 시선을 통해 관광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

- 1) 대안적 형태의 관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Munt(1994)를 참고할 것.
- 2) 예를 든다면, 생수의 라벨은 바뀌더라도, 생수를 마시는 습관은 가져간다는 것이다.
- 3) 해외에서 한국 관광객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단체 사진 수행과 복장 때문이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많은 수의 한국 관광객들은 아웃도어 복장을 하고 있고, 관광 명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 이러한 습관은 (한국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정제화된 패턴이다.
- 4) Turner의 개념인 역치성(liminality)은 문지방을 의미하는 limen에서 파생된 것으로, (마치 문지방에 서 있는 것과 같이) 평소 금기로 여겨지는 공간과 행위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비일상적인 상황이 표출되는 단계이다(류정아, 2013). 원래는 사육제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관광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5) tourism 앞에 A에서 Z으로 시작되는 그 어떤 접두사가 연결되어도 새로운 관광(유형)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cademic'이 앞에 오면 'academic tourism(학술 관광)'이 되고, 'agriculture'가 오면 'agriculture tourism(농업 관광)'이 되는 것이다. 당시 새롭게 등장하는 관광을 설명하

- 기 위해 Mowforth와 Munt(1998)가 제시한 표현이다.
- 6) 수행 패러다임 혹은 수행적 전환은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에서 제기된 최근의 변화이자 분석틀이다. 수행이라는 용어는 원래 연극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로 채택되고 있다. 즉, 의미를 생산하는 신체적 실천으로 수행을 이해한다. 수행적 전환은 인류학,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사회학, 지리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오정준, 2017, 105-106), 1990년대 후반부터는 관광 연구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 7) 이러한 연유로 수행적 전환은 다수의 이론과 공명한다. 관광객을 일상의 수행자로 고려하는 연극학적 사회학(Goffman, 1959), 체화된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비재현 이론(Thrift, 1997; Lorimer, 2005), 그리고 수행이 권력의 사회적 대본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수행성 이론(Butler, 1993)이 대표적이다.
 - 8) Simmel(1997)에 의하면 근대적 메트로폴리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가운데 그들 자신을 발견하고, 움직이는 균중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거리두기 하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 9) Graburn(1983)은 관광객들이 거주지 상반되는 환경을 목적지로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 10) '집에서의 여행'을 잘 설명해주는 개념으로는 시공간 압축, 관광의 종말, 탈관광객 개념 등이 있다.
 - 11) 한국일보 2020년 4월 2일.
 - 12) 박문각, 2020, 시사상식사전.
 - 1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캐나다의 에드먼튼 몰(West Edment Mall)을 사례로 설명한 심승희의 글에서 확인 가능함(심승희, 2019, 560-562).
 - 1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오정준(2015a)을 참고할 것.
 - 15) 가족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은 다음 글을 참고할 것(고영복, 2001, 한국인의 성격: 그 변혁을 위한 과제, 사회문화연구소, 64쪽).
 - 16)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글래핑, 차박 등도 이에 해당된다.
 - 17) Edensor(2000)는 관광객 무대(stage)를 엔클레이브 관광 공간과 이종적 관광공간(heterogeneous tourist space)으로 구분하면서, 무대에서의 관광객 실천(연)이 규범과 습관, 관광업자의 통제양식, 그리고 공간의 물질적 형태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었다. 전자는 중앙통제적이며 규칙을 준수하는 프레임된 공간으로서 관광객만 존재하는 고립된 공간이다. 후자는 앞선 특징의 경계가 소멸되는 공간으로서, 관광객이 현지 지역주민과 혼재되는 공간이다. 엔클레이브 가족 공간(enclavic family space)은 앞선 Edensor(2000)의 개념을 차용해서 필자가 명명한 용어이다.
 - 18) 플랫폼을 통해 현지 요리사가 고객(관광객)을 가정집에서

응대하는 공유 경제 서비스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www.eatwith.com).

- 19) 카우치 서핑은 잠잘 만한 '소파(couch)'를 ' 옮겨 다니는 일(surfing)'을 뜻하는 여행자 네트워크이다.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운영되며, 세계 10만여 도시에 회원이 약 600만 명에 달한다. '숙소 교환'이 아니라, A는 B를, B는 C를, C~Z 중 누군가는 다시 A를 재워주는 식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무료 숙소 품앗이'다. 카우치 서핑의 목표는 '회원들이 만남을 통해 삶을 공유하고 문화적 교류와 상호 존중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다(강준만, 2014,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인물과 사상사).
- 20) 앞서 언급한 내용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중심관광객지구(Stansfield and Rickert, 1970), 관광업무지구(Getz, 1993), 엔클레이브 관광객 공간(Edensor, 1998), 관광객 거품(Judd, 1999).
- 21) 1995년 Gehry의 설계로 건축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침체한 산업도시를 문화 예술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스타 건축가의 활동 범위가 세계로 확장되었고, 유명 건축가들은 상징적인 건축물 건립을 위해 문화적, 정치적 맥락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부터 설계를 의뢰받게 된다(심승희, 2019, 564).
- 22) 도시 이미지 구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부성(2010)을 참고할 것.

참고문헌

- 강준만, 2014, 인문학은 언어에서 태어났다, 서울: 인물과사상사.
- 고영복, 2001, 한국인의 성격: 그 변혁을 위한 과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김병서 율김, 1992 자아표현과 인상관리-연극적 사회분석론-, 경문사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 김부성, 2010,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 관광개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pp.354-380.
- 김사현·지선진, 2006, "근대-탈근대사회 맥락에서 본 관광패턴의 변화: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여가관광연구 9, pp.1-18.
- 류정아, 2013, 축제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형준·권기돈 율김, 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학사 (= Lash, S and Urry, J., 1994, *Economies of Signs*

- and Space*, Sage, London), pp.381-382.
- 심승희, 2020, “도시 경관과 건축,” 한국도시지리학회 엮음, 도시지리학 개론, 파주: 법문사.
- 오정준, 2004,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제주 관광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9(3), pp.391-408.
- 오정준, 2015(a), “재현과 수행으로서의 관광객 사진: 리버덕 프로젝트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0(2), pp.217-237.
- 오정준, 2015(b), “‘재현의 재현’을 넘어선 관광객 사진-영화 건축학 개론 ‘서연의 집’에서의 사진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27(3), pp.131-145.
- 오정준, 2017, “장례식장의 지리학: 모빌리티와 사진수행의 만남,”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7(1), pp.103-117.
- 이승준·최낙환·맹나·남바야르, 2013, “중국소비자의 세계 시민주의가 글로벌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태경상저널 5(2), pp.45-64.
- Bærenholdt, J., Haldrup, M., Larsen, J. and Urry, J., 2004, *Performing Tourist Places*, Ashgate.
- Campbell, N., 2005. “Producing America. Redefining post-tourism in the global media age,” in Crouch, D., Jackson, R. and Thompson, F.(eds), *The Media and the Tourist Imagination: Converging Cultures*, London: Routledge.
- Cohen, E., 1979,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s,” *Sociology* 13(2), pp.179-201.
- Crouch, D., 2003, “Spacing, performing, and becoming: tangles in the mundan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11), pp.1945-1960.
- Diaz-Soria, I., 2017, “Being a tourist as a chosen experience in a proximity destination,” *Tourism Geographies* 19(1), pp.96-117.
- Edensor, T., 2000, “Staging tourism: tourists as performe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2), pp.322-344.
- Edensor, T., 2001, “Performing tourism, staging tourism: (re)producing tourist space and practice,” *Tourist Studies* 1(1), pp.59-81.
- Franklin, A. and Crang, M., 2001, “The trouble with tourism and travel theory,” *Tourist Studies* 1(1), pp.5-22.
- Graburn, N. H. H., 1983,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1), pp.9-33.
- Haldrup, M. and Larsen, J., 2009, *Tourism, Performance and the Everyday: Consuming the Orient*, UK: Routledge.
- Hoffman, M., Fainstein, S. and Judd, R.(eds), 2003, *Cities and Visitors: Regulating People, Markets, and City Space*, Oxford: Blackwell.
- Larsen, J., 2004, *Performing Tourist Photography*, Ph.D. Dissertation, Roskilde University.
- Larsen, J., 2005, “Families seen sightseeing: Performativity of tourist photography,” *Space and Culture* 8(4), pp.416-434.
- Larsen, J., 2008, “De-exoticizing tourist travel: everyday life and sociality on the move,” *Leisure Studies* 27(1), pp.21-34.
- Larsen, J., 2019, “Ordinary tourism and extraordinary every life: Re-thinking tourism and cities,” in Frisch, T., Sommer, C., Stoltenberg, L. and Stors, N. (eds), *Tourism and Everyday Life in the Contemporary City*, London: Routledge, pp.24-41.
- Lorimer, H., 2005, “Cultural geography: the busyness of being ‘more-than-representation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1), pp.83-94.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9(3), pp.589-603.
- Maitland, R. and Newman, P. (eds), 2014, *World Tourism Cities. Developing Tourism Off the Beaten Track*, London: Routledge.
- Maitland, R., 2013, “Backstage behaviour in the global city: tourists and the search for the ‘real London’,”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05, pp.12-19.
- Matoga., L and Pawlowska., A, 2018, “Off-the-beaten-track tourism: a new trend in the tourism development in historical European cities. A case study of the city of Krakow, Poland,” *Current Issues in Tourism* 21(14), pp.1644-1669.
- Mowforth, M. and Munt, I., 1998, *Tourism and Sustainability: New Tourism in the Third World*, London: Routledge.
- Munt, I., 1994, “The ‘other’ postmodern tourism: culture, travel, and new middle classes,” *Theory, Culture and*

- Society* 11, pp.101-123.
- Osborne, P., 2000, *Travelling Light: Photography, Travel and Visual Cultur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Richard, G., 2017, "Tourists in their own city - considering the growth of a phenomenon," *Tourism Today* 16, pp.8-16.
- Ritchie, B. W. and Maitland, R., 2010, *City Tourism: National Capital Perspectives*, CABI Publishing.
- Stors, N., Stoltenberg, L., Sommer, C. and Frisch, T., 2019, "Tourism and Everyday Life in the Contemporary City, An Introduction," in Frisch, T., Sommer, C., Stoltenberg, L. and Stors, N. (eds), *Tourism and Everyday Life in the Contemporary City*, London: Routledge.
- Thrift, N., 1997, "The still point: Resistance, expressive embodiment and dance," in Pile, S. and Keith, M. (eds), *Geographies of resistance*, London: Routledge.
- Turner, L. and J. Ash, 1975, *The Golden Hordes*, Constable, London.
- Uriely, Natan., 2005, "The tourist experience: conceptual developm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1), pp.199-216.
- Urry, J. and Larsen, J., 2011, *Tourism Gaze 3.0*, London: Sage.
- Urry, J., 1990, *Tourism Gaze*, London: Sage.
- Urry, J., 2002, *Tourism Gaze(2nd edition)*, London: Sage.
- [홈페이지 및 신문]
- 한국일보, 2020년 4월 2일자.
www.eatwith.com
- 교신: 오정준,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53-850-4153, 이메일: ohjj@daegu.ac.kr
- Correspondence: Jeongjoon Oh,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201, Daegudae-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38453 Republic of Korea, Tel: +82-53-850-4153, E-mail: ohjj@daegu.ac.kr
- 최초투고일 2021년 02월 24일
수정일 2021년 03월 13일
최종접수일 2021년 03월 21일